

“KAL기 폭파는 北 테러...난 가짜 아니다”

남북 日 대구치 가족 면담한 김현희씨 사건 조작설 일축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47) 씨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아에코씨 가족이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극적으로 만났다. KAL기 폭파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만이고, 다구치 씨가 납치된 지 31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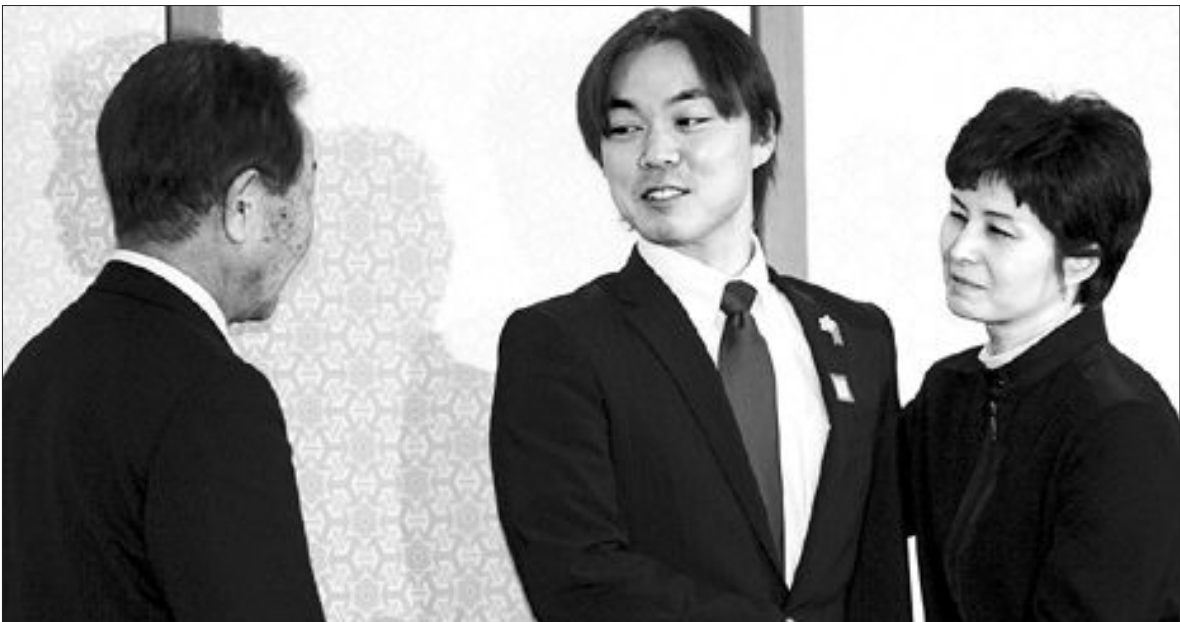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다구치 씨가 1978년 북한에 납치된 뒤 2년 가량 김현희 씨와 함께 살면서 일본어를 가르친 이 은혜라는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희 씨는 이날 다구치 씨의 장남 이즈카 고이치로(32) 씨, 오빠인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이즈카 시게오(70) 씨와 공개적으로 만났다. 김 씨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97년 전국 공안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연 이후 12년 만이다.

검은색 바지정장 차림에 짧은 머리를 한 김 씨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면담장으로 들어섰고, 4분 가량의 공개면담과 90분간의 비공개 면담 후 다구치 씨 가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소회를 밝혔다.

김현희 씨는 “KAL기 사건은 북한이 한 테러고, 저는 가짜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건 조작설을 일축했다. ‘참여정부 때 KAL기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현 정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다구치 씨와 관련, “8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초대소에서 생활하며 들은 것은 ‘다구치 씨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생각했고, 86년에 결혼시켰다는 얘기를 들었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47·오른쪽)씨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아에코씨의 장남인 이즈카 고이치로(32·가운데)씨가 상봉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헤어지며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밝혔다.

그는 또 다구치 씨의 장남 고이치로 씨에 대해 “어머니를 많이 닮아 헌심하다”면서 “제가 아들을 만난 것을 알면 다구치 씨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한다”고 말해 다구치 씨가 은혜임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김현희 씨로부터 확보한 다구치 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동안 “다구치 씨가 1986년에 고

통사고로 사망했고, 유골은 호우로 유실됐다”고 설명해온 북한에 해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1월 NHK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구치 씨의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구치 씨의 가족도 이를 수용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면담당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 이날 면담이 이뤄졌다.

김현희 씨는 KAL기 폭파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90년에 특별사면됐다.

이후 책 집필이나 강연 등의 활동을 하다 전직 안전기획부(현재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결혼한 1997년 12월 이후 공식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KAL기 폭파사건 조작설을 담은 소설이 출간된 2003년 말부터 은둔생활을 해왔다. /연합뉴스

“김현희 중국어 교사는 마카오서 피랍”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씨에게 북한에서 중국어를 가르친 여성은 마카오에서 실종된 납치 피해자로 보인다. 일본의 납치 피해자 구출 협의회가 11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현희 씨와 만난 한국의 한 인사가 이 협의회가 피랍자 가족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을 보여준 뒤 김씨로부터 “이 여자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다”는 답변

을 들었다. 협의회는 이 여성이 1978년 7월 마카오에서 실종됐다고 밝혔다. 실종 당시 나이는 20세였다.

김현희씨는 중국어 교사와 관련, “5살 정도 연상인 ‘미스 공’이라는 여성이었다” “마카오에서 납치됐다고 사진을 보여준 뒤 김씨로부터 “이 여자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다”는 답변을 들었다. /연합뉴스

美 정보국 “北 발사체는 인공위성”

첫 성격 규정...요격 가능성 낮아져

“어쨌든 유엔결의 위반” 입장 불변

북한이 발사준비를 해 온 로켓을 놓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가정보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장이 10일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이며, 그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우주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더 나아가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우주발사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는 그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에 실어보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점에서 블레어 국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위성발사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금까지 미 국무부 등이 북한이 쏘아 올리는 발사체에 대해 구체적인 성격규정을 유보한 채 무엇이 발사되든 역내 안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내온 것과는 위양스의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만일 미국 정보당국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요격가능성은 현격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미 정보당국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협의 상태이더라도 차리지 않은 북한이 미사

일 발사 한방으로 초장부터 완전히 판을 깨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구분짓는 기준이 탑재되는 물체, 즉 탄두나, 위성기기에 따라 결정될 뿐 발사의 원리는 같다는 점에서 굳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겠느냐는 추론에서다.

그러나 블레어 국장이 북한이 발사할 준비중인 발사체에 대해 인공위성 쪽에 무게를 뒀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대응수위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북한의 위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성발사 기술은 미사일 기술로 전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발사체가 됐든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못박아 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오바마 “한국의 교육열 배워라”

美 학생들 더 많은 시간 공부해야 새 시대 도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며 21세기에 대비한 수업확충 모델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을 통해 “새로운 세기의 도전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 공부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국에

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바로 여기 미국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환경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교육시간의 개혁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농경국가 시절 방과 후에 아동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던 시기에 설계된 학교수업일정을 그대로 유지해나갈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2010년까지 미국의 대학생 졸업 비율

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면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고교 퇴학을 감소 노력 강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의 성과평가를 중시하는 성과급 지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은 진보를 가로막고 교육의 후퇴를 영속화시켜온 낡은 논쟁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우리당의 많은 지지자도 우수한 교사들에게 추가 보상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www.kimyouna.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당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1062-227-8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대학편입 대개강: 4월 1일

어머니에

“살해인물 수출의 달” 수상기록

무료체험단모집

2009년 12월 11일 - 2009년 12월 31일

010-7700-1254

2009년 12월 11일 - 2009년 12월 31일

010-7700-1254

2009년 12월 11일 - 2009년 12월 31일

010-7700-1254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064-744-1109